

델로스 동맹과 아테네

글. 김인겸 역사문화 칼럼니스트

델로스 동맹의 결성

페르시아 전쟁이 사실상 종료된 시점부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는 때까지의 약 50년(기원전 479~431년)은 아테네가 대외적으로는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에게해의 패권을 장악하고, 국내적으로는 민주정을 실현한 황금기였다. 아크로폴리스 위에는 폐허 속이기는 해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용을 간직하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우뚝 솟아 있었고, 이를 위시하여 수많은 공공건축물이 이 시기 아테네의 번영을 웅변해준다.



그림 1. 마라톤 전투 대형도 / 제작 : 미국육군대학, 출처 : 위키미디어

페르시아군의 재침공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중에 스파르타의 섭정 파우사니아스를 사령관으로 하는 그리스 동맹군은 기원전 478년 페르시아의 잔존세력을 일소하기 위해 키프로스 원정과 비잔티움 공략을 감행했다. 그런데 파우사니아스의 거만한 태도에 더하여 그가 페르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까지 겹치자 파우사니아스는 동맹국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그는 본국으로 소환되었고, 후임으로 온 인물도 거절되고 말았다. 동맹국들은 강력한 해군을 제공해 확고한 신뢰를 얻고 있던 아테네에 총지휘권을 위임했다. 여기에는 아테네 측의 적극적인 막후 공작도 작용했다.

기원전 477년 초여름 아테네를 맹주로 하는 새로운 공수동맹이 델로스섬에서 결성되었다. 가맹국 대표들은 씻던어리를 바닷물 속에 빠트리면서 그것이 물 위로 떠 오를 때까지 결속한다고 다짐하며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동맹체제에 대한 충성을 엄숙히 선서했다. 이것이 오늘날 델로스 동맹이라고 부르는 체제로 그 성립 배경의 밑바닥에는 페르시아에 대한 공포감이 작용하고 있었다. 동맹국은 함선이 없을 경우 매년 공납금을 납부하기로 정하고, 동맹 금고는 델로스섬에 두기로 했다. 동맹 재정의 관리직으로 10명으로 구성되는 ‘그리스 재무관’이 설치되었지만, 그 명칭과는 달리 그 직책에는 처음부터 아테네 민회에서 선출된 아테

네인들만 취입했다. 델로스섬에 설치된 동맹 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동맹의 당면 과제는 에게해역을 동맹의 지배하에 두고 페르시아 세력을 쫓아내는 것이었다. 아테네의 장군 키몬(마라톤의 영웅 밀티아데스의 아들)은 트라키아에서 페르시아의 거점이던 에이온을 공략하고, 해적질을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던 돌로페스 족을 키프로스 섬에서 쫓아낸 다음 에이온과 키프로스 섬에 각각 자국의 식민단을 보내었다. 또한 동맹 가입을 거부한 칼리스트스를 무력으로 겁박하여 가입시키는 한편, 최초로 동맹에서 이탈하려 한 낙소스섬을 역시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키몬은 에우리메돈 강 어귀에서 페르시아군을 지상 및 바다에서 동시에 격파해 에게해역에서 페르시아의 위협을 제거한다는 동맹의 애초 목적을 달성하였다.

아테네 제국

동맹 결성 초창기만 해도 가맹국의 자치독립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그런데 맹주 아테네는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델로스 동맹 자체에 대한 지배를 강화해 갔다. 이 정책은 키몬이 대표하는 보수파든 페리클레스나 크레온으로 대표되는 민중파든,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했으며 민회의 결의를 통한 시민 전체의 뜻이기도 했다. 기원전 449년에 맺은 페르시아와의 평화조약으로 페르시아의 위협이 공식적으로 사라져 동맹의 존재 이유 역시 상실된 상황에서도 델로스 동맹을 해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해상의 패권에 집착한 아테네 시민의 태도는 확실해졌다. 아테네는 가맹국 내부의 권력 투쟁에서 민주파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자국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두파를 지지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아테네의 제국주의적 욕망이 노골화된 전환점은 기원전 454년경 동맹 금고를 아테네로 이전한 사실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팽창정책 자체를 문제시한다면 그 씨앗은 이미 기원전 6세기에 군사 식민지 케르소네소스를 경영한 사실과 실패로 끝난 밀티아데스의 파로스 섬 원정, 테미스토클레스의 해군력 증강 정책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일련의 팽창주의 노선까지 소급하여 볼 수 있다.

아테네의 동맹 지배는 에게해 동부의 유력한 3개의 섬인 레스보스, 키오스, 사모스를 제외하면 의도적으로 동맹에

합선을 제공해 온 국가들의 수를 줄여간 데서도 드러난다. 즉 점차 동맹국들을 무장 해제시켜 합선 제공 대신 공납금을 납부하는 방향으로 유도해갔던 것이다. 그 외에도 동맹국의 내정에 간섭하여 아테네의 관리나 주둔 병력을 파견하는가 하면, 독립의 표상인 사법권이나 화폐 주조권까지 박탈하는 등 동맹국을 사실상 복속시키려는 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아테네인을 식민단으로 동맹국에 파견해 중산층 정도의 재산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토지분배를 강제했다. 기원전 4세기에 체결된 제2차 아테네 해상동맹의 규약에는 공사를 막론하고 동맹국 내에서 아테네인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한다는 점이 각별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델로스 동맹의 존속 기간에 거의 모든 동맹국에서 아테네인의 부동산 소유로 인해 심한 알력과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제국 경영의 이익은 매년 납부하는 공납금, 각종 법정 수수료, 벌금 등의 명목으로 아테네로 흘러들어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합선 승무원의 급료 및 식대로, 혹은 아크로폴리스 정비 등의 공공사업 비용 등으로 아테네 시민들에게 배당되었다. 연극을 관람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지급하던 관극 수당이 신설된 것도 이 시기였다고 추정된다. 이런 식의 지출은 들어오는 대로 써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던 폴리스 재정의 특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테네의 황금시대가 제국 지배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공공사업을 통해 각종 기술이 축적된 것이나 안정과 질서에 기반한 상공업 발달, 패권국 시민으로서 느끼는 자부심 등 아테네 시민들은 가시적·비가시적 이익을 누렸다.

아테네의 가혹한 제국 지배의 실체는 동맹 이탈국이나 중립국을 다룬 방식에 잘 드러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에 중립을 지켜 델로스 동맹에의 가입을 거부한 델로스 섬의 주민은 성년 남자 전원의 처형과 부녀자의 노예화라는 비극을 겪어야 했다. 자유의 이념을 추구하면서도 노예를 보유하는 데 모순을 느끼지 않았던 폴리스 사회의 특질은 다른 나라의 예속과 희생을 바탕으로 자국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도 쉽게 정당화했다. 물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은 저마다 처한 운명은 달랐다고 믿어 노예에게는 노예의 운명과 노예로서의 덕목이, 주인에게는 주인의 운명과 주인으로서의 덕목이 달리 주어진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번영 유

지를 위해 패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패권 정당화론이 아테네에서는 우세했다.

스파르타의 견제

통수권을 아테네에 넘겨줄 당시 스파르타는 부담을 더는 것으로 여겨 이를 묵인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해상 패권을 구가하고 지상에서도 각지에 탐욕스럽게 세력을 뻗치려 하는 아테네를 좌시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기원전 465~464년 타소스가 델로스 동맹을 이탈했을 때 스파르타는 아티카 침공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그 요청에 응하기 직전 본국에 대지진이 발생했고, 그 틈을 타 메세니아의 헤일로타이가 반란을 일으켜 이토메 산에서 농성하기 시작했다. 반란 진압에 손을 써야 했던 스파르타는 아테네에도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키몬 휘하의 아테네군이 혹시 반란을 조장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품어 스파르타는 아테네군의 철수를 명령하였다(기원전 462년). 친 스파르타적이었던 키몬은 귀국 직후 탄핵을 받아 그 이듬해에 도편 추방으로 권력을 상실했다. 이 사건을 통해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동맹을 파기하고 스파르타의 오랜 적인 아르고스와 동맹을 맺었다. 그런가 하면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가맹국들인 코린토스와 메가라 사이에 일어난 국경 분쟁에 개입해 메가라를 동맹에서 탈퇴하게 하고, 그 외항 나사이아와 시내를 잇는 장성을 쌓아 수비대를 주둔시킴으로써 스파르타의 북동 방면으로의 진출을 차단하는 한편 코린토스만에도 항구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시작된 제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양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은 채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도시들, 당시 타나그라가 급부상하고 있던 보이오티아 연방, 델포이의 귀속 등을 둘러싸고 산발적인 전투가 벌어졌을 뿐이다. 마침내 스파르타군이 아티카를 침공했으나, 페리클레스의 매수 공작을 계기로 기원전 445년 양국 사이에 30년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평화를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아테네가 육지에서의 패권을 단념하는 대신 이미 확보한 해상 패권은 인정받고, 서로의 동맹체제를 존중하되 신규 가맹국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합의 하에 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하지만 이 평화조약은 양국 간의 공공연한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하지 못한 채 페리클레스의 매수 공작에 의해 ‘평화를

위한다기보다는 시간을 벌기 위해’ 합의한, 애당초부터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평화는 14년밖에 존속하지 못했다. 양국은 각자의 동맹을 이끌고 드디어 전면전에 돌입했다.

아테네 민주정

아테네 민주정은 성년 남자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형태로 완성되었다. 근대 민주정의 특징 중 하나인 직업적인 관료제는 아테네와는 무관했다. 아테네인은 한정된 임기의 공직자들을 시민 가운데에서 추첨으로 뽑고(단 장군 등의 전문직은 예외였음) 엄격한 자격 심사와 업무 보고로 이들을 감시했다. 민회의 결의를 보면 관리의 부정에 대한 엄격한 감시는 권력이 인간을 반드시 부패하게 한다는 인식이 이 당시에도 강했음을 보여준다. 권력 분립 관념이 없었던 아테네인에게 민회란 어떤 의미에서 법정과 중복되는 기구였으며 거기에서 공사의 사건들이 논의되고 결정되었다. 민회에 오늘날 국가가 범죄 기소를 담당할 때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검찰관직에 상응하는 관직은 없었다. 따라서 관리의 부정에서 살인죄에 이르기까지 개인에 의한 고발이 민회법정에서 처리되는 모든 심리의 출발점이었다. 한편 활과 칼로 무장한 소수의 국가 소유의 노예병력이 오늘날 경찰에 해당하는 업무를 맡았다. 전문적인 법학자는 존재하지 않았고, 추첨으로 뽑힌 시민이 투표기구를 이용해 판결을 내렸다. 그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완전히 논쟁적인 분위기가 자리 잡아 진실 추구보다 참석한 시민 배심원들을 잘 설득하는 데 역점을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변론술(혹은 꾀변)이 발달한 것이다. 재판이 진 사람이 상대방 증인의 허를 저주하는 내용을 새긴 납판이 다수 발굴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이처럼 아테네의 민주정은 아마추어들의 정치였지만, 그들은 단순한 아마추어가 아니라 중요한 경험을 몸으로 익히고는 있었다. 민회에서 발언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귀족 출신인 유명한 정치가가 발휘한 지도력을 신임하는 형태로 민회는 운영되었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민회의 의결은 항상 1인 1표제를 따랐다. 이 점은 로마의 민회나 프랑스의 3부회에서 운영했던 단위 투표 방식과는 달랐다. 로마의 민회는 개인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것



그림 2.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레오 폰 클렌제 1846년 작품, 원헌 Neue Pinakothek 소장 / 출처 : 위키피디아

이 아니라 100인으로 구성된 켄투리아가 한 표를 가졌다. 프랑스의 3부회도 이와 유사했다. 어쨌든 아테네는 민주화를 거치며 민회에 권한이 집중되었고, 민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사를 결정했다.

아테네에서는 재력가나 명망가 혹은 가문 좋은 자가 선출되기 쉬운 선거 제도를 민주적이라고 간주하지 않아 추첨을 널리 활용했다. 마라톤 전투 직후인 기원전 487년 국정의 대권을 쥔 9명의 집정관(아르콘)을 선출하는 방식이 선거에서 추첨으로 바뀐 것도 그 일환이었다. 그러나 선출방식이 바뀌자 아르콘 직은 권위를 잃어버렸고 그에 따라 전직 아르콘들로 채워지던 유서 깊은 귀족 지배의 아성인 아레이오파고스 평의회는 권위도 크게 실추되었다. 그리하여 기원전 462년에는 아레이오파고스 평의회가 보유하고 있던 권한들도 살인죄 심리 등 일부를 제외하면 500인 평의회와 민회 법정에 빼앗기고 말았다. 이를 에피알테스의 개혁이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테네 정치체제』에는 이때 에피알테스를 도운 사람이 테미스토클레스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기원전 457~456년에는 농민층까지 아르콘직에 대한 피선거권을 확대하여 민주화는 한층 더 진전된다. 아르콘 직이 권위를 잃으면서 대신 국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은 장군(스트라테고스) 직이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중임도 허용된 이 직책은 아르콘이 맡았던 마라톤 전투의 사령관과 장군이 맡았던 살라미스 해전의 차이를 보여준다. 아테네의 황금시대를 구가한 페리클레스도

해마다 계속해서 장군직에 선출된 국정 지도자였다.

페리클레스 시대

테미스토클레스의 노선을 답습한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민주정의 완성 단계를 대표하는 정치가이다. 그는 친 스파르타 성향의 귀족 출신 키몬에 대항하는 활동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에피알테스의 민주개혁에 참여한 경력을 가졌다. 그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노잡이로 활약한 무산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바탕으로 델로스 동맹에서 들어오는 풍부한 자금을 활용하여 시민의 공공생활에 대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페리클레스는 원대한 이상을 품고 있었다. 풍부한 재원을 이용해 아테네 제국의 영광을 마르도니오스가 파괴한 아크로폴리스에 새겨 넣어 후세에 남기려 했던 것이다. 매년 공납금을 지불하러 오는 각 동맹국 대표들의 눈에 찬란하게 빛나는 신전들의 모습은 어떻게 비쳤을까? 페리클레스는 물론 동맹 기금을 그렇게 쓰는 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아테네인에게만 책임질 뿐으로 그들의 이익을 증대하는 데에 전념한 제국주의자였던 것이다.

기원전 451년 페리클레스는 그때까지 부친이 시민이면 어머니가 외국인이어도 무방하던 시민권 취득 자격을 양친 모두 아테네 시민이어야 한다고 제한하는 법령을 제안하여 통과시켰다. 그 주된 목적은 제국의 이익을 나눠 가질 사람의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게 하려는 데 있었다.



그림 3. 페리클레스 대리석 조각상 / 출처 : 위키피디아

이렇게 페리클레스 시대에 아테네 민주정은 완성되었다. 아테네를 그리스의 학교라 자랑한 페리클레스를 높게 평가한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그의 정치를 가리켜 “이름은 민주정이지만, 실은 1인의 지배”라고 평가하였다. 페리클레스의 시대에 아테네의 전성기도 그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